

완주, 먹거리 유통지도 제작

군 농업경영실태 전수조사 경영체기준 전국 최초 실시

완주군이 먹거리 생산 현황을 파악하고 한 눈에 알 수 있는 먹거리 유통지도 제작 등을 위해 군 농업경영실태 전수조사를 경영체기준 전국 지자체 처음으로 실시한다.

24일 군에 따르면 이번 전수조사는 정확한 농업통계 구축을 통한 맞춤형 농정 실현을 위해 지난 24일부터 오는 11월 18일까지 진행된다.

대상은 기본적인 농가현황, 농업시설현황, 농축산물 생산 및 유통현황 등이다.

특히 농업 경영체에 등록된 총 11,385호를 직접 방문해 1:1 면접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군은 통계청에서 농·어업 통계조사(농림어업총조사)가 진행되고 있지만 5년 단위의 조사로 농업정책에 즉시 반영할 수 없고 유통현황 등은 정확히 파악할 수 없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직접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전수조사를 위해 군은 지난달 전체 농업인에 대한 자료를 입력하고 분석할 수 있는 맞춤형농정지원 시스템 개발을 완료했다.

조사 결과가 입력되면 완주군 전체 농가 및 농업법인별 경영체의 먹거리

생산현황 및 추계 등 조사내용을 바탕으로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는 먹거리 유통지도 제작과 함께 농가소득까지 정확하게 구축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조석현 농식품유통팀장은 "이번 전수조사는 지역농업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가장 근본이 되는 중요한 조사로써, 매년 지속해서 조사하게 될 것이고 입력된 자료는 완주군 농업을 육성시키기 위한 중요한 도구가 될 것이다"며 농가 및 농업법인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했다.

/원주=이종복 기자

무주군, 문화가 있는 날 체험프로그램 운영

'최북미술관 야행 夜行'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
선착순 30명 체험비 무료



무주군은 최북미술관 세미나실에서 문화가 있는 날 체험 프로그램 "미술관 야행 夜行"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미술관 야행 夜行"은 12월까지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진행되며 대상은 선착순 30명(초등학교 1학년 이상, 가족단위 3인 이상 및 단체 접수 불가), 체험비는 모두 무료다.

10월 26일에는 천연돌가마(석재화) 체험을 하는 날로 석재화가 갓길 찌가 직접 강사로 나서 "나만의 석재화 만들기"를 진행하며 11월 30일에는 "크리스마스(크리스마스) 만들기"가 진행될 예정이다.(접수는 11월 25일~29일, 크리스마스(크리스마스) 만들기는 미술전문강사 박승자 씨와 함께 한다.)

12월 28일에는 도예가 윤숙 씨와 함께 하는 "토닥토닥(토끼) 만들기"도 진행된다. 체험 신청은 12월 23일부터

27일까지 최북미술관(320-5636 / 5606)에서 받는다.

한편, 큐레이터와 함께 하는 전시실 관람 프로그램도 마련돼 기대를 모으고 있다. 26일에는 상설전시실에서, 11월 30일과 12월 28일에는 기획전시실에서 진행될 예정으로 올 1년 간 최북미술관에서 진행했던 주민 대상 교육 프로그램(서양화, 한국화 등의

결과물들이 전시될 예정이다.

무주군 양정은 화에서는 "미술관 야행은 관광객들과 주민들이 모두 참여할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이라며 "무주군은 최북미술관이 보고 느끼는 데서 나아가 직접 만들고 그리며 재미를 느끼는 공간으로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무주=전문선 기자

무주군, 스마트폰 활용 지도사 탄생 농업인 대상 SNS 마케팅 교육 결실

무주군은 스마트폰 활용 SNS 마케팅 교육을 통해 지도사 11명이 탄생했다고 밝혔다.

무주군에 따르면 총 19명이 교육을 수료했으며, 이 중 11명이 스마트폰활용 지도사 자격증(국가민간자격 기본법 제 17조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승인하고 한국지능정보개발원이 발행)을 취득했다.

교육생 중 최고점으로 자격증을 취득한 실천면 주민 최명진 씨(56세)는 "나이 들어서 스마트폰을 배우는 게 쉽지 않았지만 20강으로 진행된 교육을 한 번도 빠짐없이 들으며 성실하게 임했던 게 자격증 취득까지 갈 수 있었던 열쇠가 됐다"며 "앞으로 농·특산물 홍보와 전자상거래에 스마트폰을 마음껏 활용해볼 생각"이라고 밝혔다.

무주군이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지난 5월 25일부터 총 20회에 걸쳐 시행했던 "스마트폰 활용 SNS 마케팅 교육"



은 박형이 강사(소셜브랜딩전문가협동조합)의 진행으로, △전자상거래의 개념과 소셜 마케팅에 대한 이해, △SNS 활용방법과 이미지 편집 등 스마트폰을 마케팅에 활용할 수 있는 스킬 등이 공유됐다.

무주군 농업기술센터 이종철 인력

육성 담당은 "이번 과정은 스마트 시대에 맞춘 농업인 맞춤 교육이었다"며 "자격증 취득으로까지 이어지면서 농업인들의 자신감도 커진 만큼 농민도 부자되는 무주 실현의 든든한 기반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전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장수군 계북면 주민자치위원회는 이리 동로타리클럽, 익산 서동로타리클럽과 지역주민을 위한 봉사활동을 펼쳤다.

장수군계북 주민자치위, 지역주민 봉사활동 펼쳐

장수군 계북면 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김종근)는 지난 22일, 23일 이틀간 국제로타리 3670지구 이리동로타리클럽(회장 소재풍), 익산 서동로타리클럽(회장 한영순)과 지역 주민을 위한

봉사활동을 펼쳤다.

이번 이리동로타리클럽은 김원용 의원단장(동서한의원 원장)과 의료진, 원광대학교 로타렉트 학생들이 참여해 의료봉사활동을 펼쳤으며, 익산 서

동로타리클럽은 이·마음 부분에 여성시대 고순금 단장 지휘 아래 편, 염색, 컷트 등의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계북면 주민자치위원회는 지난 2013년 4월 이리동로타리클럽, 서동로타리클럽과 자매 결연을 맺고 교류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장수=고관호 기자



결식이웃돕기 사연 공모전 '행복우체통' 진안 용담면 김일엽 할머니 '최우수상'

사회적 기업 유한회사 나눔푸드에서 진행한 결식이웃돕기 사연 공모전 '행복우체통'에서 용담면 김일엽 할머니(87)가 최우수상을 받았다.

지난달 5일부터 25일까지 진행된 이번 공모전은 행복도시락의 지원이 필요한 이웃들의 이야기를 널리 알리고 모두가 함께하는 따뜻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진행됐다. 김일엽 할머니는 3년 전 낙상사고로 몸이 편치 않아 도시락을 지원받기 시작했다.

김 할머니는 "이 도시락은 하늘이 내린 복이고, 이름 모를 머리가 보내준 음식이라 생각하며 아끼워서 음식쓰레기조차 버릴 수가 없었다"고 표현했다.

또한 "1년 365일 휴일만 빼고 점심시간에 부지런히 배달해 주는 기사님,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과 관계자 여러분 등 고마운 분들이 너무나 많다"며 "이 고마운 마음을 널리 알리고 전하고 싶어 응모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진안=우태만 기자

진안 구봉산, 관광명소 '급부상'

국내 최장 구름다리 개설 후

급격한 기온차이를 보이며 가을이 무르익고 있는 가운데 진안의 관광명소로 떠오른 구봉산에 많은 등산객들과 관광객들이 찾고 있다.

운장산 한줄기인 구봉산은 운장산에서 북동쪽으로 6km 뾰족하게 솟구친 아홉개의 봉우리가 절경으로 특히 단풍과 설경, 운해의 명소로 유명하다.

구봉산은 훌륭한 조망대이면서도 주변의 마이산과 운장산에 가려 크게 관심 받지 못하다가 지난해 9월 국내 최장의 무주담 100m 구름다리 준공으로 현재 평일 구봉산을 찾는 등산객은 평균 300여명, 주말에는 관광버스만 7~80대가 몰리면서 많은 이들이 구름다리를 통해 정상에 오르고 있다.

이에 따라 진안군은 올해 8억4,0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임시 주차장 2개소와 현대식 화장실 설치했으며, 관리사무소와 농산물판매장을 11월 이



전에 완공할 계획이다.

또한 공을 주차장 및 제3 임시주차장 역시 올해 안에 조성을 마칠 계획으로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 구봉산을 찾는 등산객과 관광객 등의 방문 편의를 위해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농협중앙회 장수군지부, 명예이장 위촉식

농협중앙회 장수군지부(지부장 이승진)는 최근 장수군청에서 최영득 장수군수 군청 관계자 및 농협 임직원 및 개성 하행마을(이장 김희열), 용계 안양마을(이장 유영철), 금덕 호덕마을(이장 박정환)이 참석한 가운데 또 하나의 마을 만들기 명예이장 위촉식을 가졌다.

이날 위촉식에서 최영득 장수군수는 이승진 농협장수군지부장을 개정리 하행마을, 김용준 장수농협장을 용계 안양마을, 박정환 장수농협장을 금덕 호덕마을의 명예이장으로 임명했다.

또 하나의 마을 만들기 운동은 기업

CEO 및 단체장 등을 농촌마을의 명예이장으로 위촉하고 소속 임·직원을 명예주민으로 참여시켜 상호교과관인정을 나누며 마을의 숙원사업을 지원하는 등 점차 활력을 잃어가는 농촌마을에 또 하나의 마을 만들어 도농협동의 새로운 모델을 창조하는 도농(道農) 혁신운동이다.

이승진 농협 장수군지부장, 장수농협 김용준 조합장, 장계농협 박정환 조합장은 명예이장으로 위촉되고 차추 임직원은 명예주민으로 참여시켜 마을 정기방문을 통한 신(新)농촌운동으로 승화·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진안 '용담호 사진문화관' 열 번째 전시회

내년 1월 31일까지 전시

진안군 용담호 수물민들의 애환과 추억을 담은 '용담호 사진문화관'이 개관 이후, 열 번째 전시회를 연다.

이번 전시회는 24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물속의 고향!'을 주제로 40여 점의 작품을 전시한다.

용담호 사진문화관은 용담면 건설로 인한 수물민의 향수를 달랠 수 있는 공간으로 이철수 사진작가가 1995년부터 10년간 촬영한 용담댐 수물민과 유물을 보관·전시하고 있다.

전시회에서는 용담댐 건설 당시 투쟁과 이별 그리고 철거가 모두

마무리 되고 드디어 담수가 시작되면서 옛그제까지 고살이며 집터들에게 스멀스멀 물이 차오르는 광경이 가슴 아픈 사진들로 추억을 간직하면서 지역 실향민들을 위로하고자 기획했다.

진안군은 앞으로도 용담호 사진문화관을 통해 여러가지 테마로 매년 3~4회의 전시회를 열 계획이며 지속적인 전시회를 통해 수물민의 향수를 달래주고 더불어 전국 60여개 사진학과 대학생과 아마추어 사진작가들이 찾아와 사진촬영, 필름현상, 사진인화까지 체험할 수 있는 진안군 명소로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진안=우태만 기자

국립공원

완주 화산면 용수지구 경계 결정

완주군 화산면 용수지구의 경계가 569필지, 39만 8000㎡로 결정됐다.

완주군은 24일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해 "그동안 토지의 실제현황과 일치하지 않은 토지를 바로잡기 위해 2015년부터 추진해온 화산면 용수지구의 지적재조사 경계를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실제 완주군은 그동안 토지소유자 인회를 통한 재조사 측량과 의견제출 및 경계조정을 실시한 뒤 경계 결정을 위한 경계결정위원회를 열고 화산면 용수지구의 종전 562필지를 재조사 결과에 의해 569필지로 심의·의결했다.

송양권 종합민원과장은 "경계확정으로 지적재조사사업이 완료되면 토지경계 분쟁이 사라지고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보호와 효율적인 토지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완주군은 이날 경계결정위원회에서 결정된 569필지에 대해 경계결정통지서를 토지소유자에게 발송하고 60일 동안 이의신청을 받아 경계를 확정할 예정이다.

/원주=이종복 기자



무주썰, 교통 시설물 일제점검

무주경찰서(서장 최성규)는 지난 24일 무주군 전체 교통시설물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했다.

이날 점검은 기상악화나 갑작스런 신호기 고장으로 교통안전에 불편 해소를 위해 일제점검을 나섰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점검은 도로교통표지판 설치와 연결상태, 훼손 등을 집중 점검했다.

최성규 서장은 "교통안전 시설물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대국민 교통안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무주=전문선 기자

장수경찰, 현장순회교육 실시

장수경찰서(서장 윤종섭)는 24일 오후 경찰서 2층 회의실에서 각 과장 및 과장소장, 지역경찰, 112지령요원, 교통경찰 등 112총력대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10월 2차 현장순회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테러 및 재해시 대응요령과 매뉴얼에 대해 배우는 시간을 가졌으며, 강사로는 전북청 동료강사 강택수 경감과 노광욱 경위가 강의를 실시했다.

교육에 참석한 직원들은 "매번 동료강사로부터 현장 업무요령과 대응 매뉴얼을 배울 수 있어 유익한 시간이었으며, 교육기관에 가지 않고도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윤종섭 서장은 "앞으로도 강력사건이나 테러나 재해 등 예기치 못한 상황 발생 시 직무현장에서 신속하고 능숙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양질의 교육을 실시해 현장에 강한 치안전문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동부화재 호남사업단 원주 삼례읍에 쌀 기탁

동부화재 호남사업단(단장 고기현)은 지난 24일 백미 10kg 120포를 어려운 이웃에 전달해 달라며 원주군 삼례읍에 기탁했다.

이어 이날 동부화재 호남사업본부 직원 40여명과 삼례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10여명은 지역내 어려운 가정을 방문해 후원받은 사랑의 쌀을 전달했다.

고기현 단장은 "지역출신으로 비록 타지에서 직장생활을 하고 있지만 내 고향 어려운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 싶어 매년 정기적으로 후원하고 있다"며 소감을 전했다.

이승창 삼례읍장은 "누군가의 손길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어려운 이웃에게 매년 잊지 않고 먼저 손 내밀어 줘 감사하다"고 말했다.

/원주=이종복 기자